

26년 (주)휴맥스 - (주)휴맥스홀딩스 합병 Q&A

2026. 07. 16.

Q1. 합병 후 모빌리티를 비롯한 전략적 사업에 대해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?

Q&A

- 합병당사회사는 (주)휴맥스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(완속 3.5~22kW, 급속 50~200kW) 및 글로벌 20개국 이상의 사업 기반에 (주)휴맥스홀딩스의 AI 전환(AX)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충전 플랫폼을 고도화하고, 향후 UK·유럽 등 해외 전기차 충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지주-사업 이중 구조 해소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성 회복을, 중장기적으로는 AI·전기차 융합 기반의 신규 수익모델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다만 위 사업계획은 현재 시점의 계획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Q2. 휴맥스의 경우에도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는 바, 시가총액 및 주가 부양 관련하여 대응전략은 무엇인지?

Q&A

- 본건 합병을 통해 상장폐지 위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방안입니다.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3월 5일 (주)휴맥스 848,701주, (주)휴맥스홀딩스 1,137,800주의 자기주식을 각각 소각하는 등 합병 이전부터 주주가치 제고 조치를 시행하여 왔으며,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기주식도 추가로 소각할 예정입니다. (주)휴맥스는 2026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(+16억원)되는 등 수익성 회복 추세에 있으며, 합병 이후에도 비용구조 최적화를 통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

Q3. 합병 절차가 지연될 경우 상장폐지 관련한 다른 대응 방안이 있는지?

Q&A

- 합병 일정은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증권신고서 심사, 정정요구,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주요 절차별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일정 지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절차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, 필요한 보완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심사 및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예상치 못한 지연에 대비하여 주가 및 시가총액 관리, 주주소통 강화 등 합병 완료 전까지 상장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.

Q4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커질 경우 대응방안이 있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인지?

Q&A

-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합병 성사의 핵심 변수로 관리하고 있으며, 청구 규모 확대에 따른 단기 현금 유출 및 재무부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사의 가용현금 및 조달 여력을 기준으로 유동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합병계약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며, 양사에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합계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재무부담을 방지할 계획입니다(구체적 한도는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). 매수대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

THANK YOU